

“한국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습니다”

남구 명예구민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강연회

의무(duty), 영광(honor), 사랑(love). 우리가 살면서 꼭 가져야 할 세 가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가치를 주제로 몇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51년 2월 처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시신수습팀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전례 관련 일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전장에 남겨진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해 유엔기념공원으로 안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수습팀에서의 근무 첫날, 시신을 찾기 위해 부산에서 대구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들른 곳에서 열 살 가량의 한 소녀가 저에게 사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건네 준 소녀의 마음이 예뻐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그 남자는 나무에 몸을 의지한 채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에게 따뜻한 음료를 주고 담요를 덮어준 뒤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서 작전을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웬지 모르게 그 두 사람을 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니다. 두 사람을 만났던 그 일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종종 악몽을 꾸고 밤에 흠뻑 젖어 깰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쟁에 대한 악몽은 시신을 수습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사망한지 3~4개월이 지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3명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고 나면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날은 3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번줄과 군인수첩의 이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광진장이었던 전쟁통에 뒤섞였다 싶기도 하고 누군가 바꿔놓은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 신원을 알아내지 못한 채 그 3명은 유엔기념공원에 무명용사로 안장을 했습니다. 그때 겨우 19살이었던 그 군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시신수습 작업을 하다보면 화내고 슬픈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우들의 이름을 찾지 못한 채 안장을 하는 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칠 때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시신수습을 하는 일은 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신 수습이 한층 수월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땅이 얼어 파기 어려운 겨울 보다는 봄과 여름이 수월했습니다. 특히 눈에 시신이 많았는데 눈 속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곳을 파면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쉽게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지만 아이러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시신수습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약 90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만 한국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들은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습니다.)

1953년, 남과 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쟁이 끝났습니다. 참전한 군인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지금까지도 결코 전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쟁 중 겪은 끔찍한 일들이 떠올라 매일 악몽을 꾸니다. 신체적인 부상으로 평생 을 고생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 예로, 한국전쟁 마지막 전투에 참여한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제 친구 '존 폴드'는 옆구리에 총알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존의 아내 '베로니카'는 62년간 매일 낮과 밤에 각각 4번, 2번씩 상처 입은 부위를 소독해주며 살아야 했습니다.(2015년 존 폴드 사망, 남편 사망 후 5월 후 아내 베로니카도 운명).

얼마 전 12~14세 소녀들이 다니는 영국의 한 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중 한 소녀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나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녀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었나요?" 안타깝게 이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언급이 적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며 의무, 영광, 사랑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등,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이 세 가지 가치를 꼭 지니고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질문1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과장입니다. 6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우고 희생하신 분들을 수습하고 유엔묘지에 신원 확인도 못한 채 매장했다는 얘기에 가슴이 먹먹하고 그때의 고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국방부 유해발굴단)도 그때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전국방방곡곡을 다녔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국군이나 유엔군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유해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 (구체적) 장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4~5명의 시신이 남겨진 장소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고, 3개월 뒤 그곳에 다시 갔더니 시신은 없고 옷가지와 부츠 등만 남아있었습니다. 대구~서울지역, 서울~가평 및 그 위쪽 지역 수습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해발굴 지역에 관해 언제든지 이야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질문2 : 내년에도 남구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답변 : 재미없는 영국 유머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알고있던 어떤 여성분과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여성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아 호텔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비용을 제가 냈습니다. 초대를 하신다면 꼭 도망가지 마시고 먼저 지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룬디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이 멋진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룬디 할아버지에게, 제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님께 편지를 쓴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저의 캐나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UN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왜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묻혔는지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그 많은 분들이 저와 제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살아계신 참전용사님들을 직접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기회는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제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참전용사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한국전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게 되었습니다. 참전용사님들의 우정, 형제애, 희생, 그리고 큰 슬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전용사님들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눠, 참전용사님들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의 미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룬디 할아버지께서 부산의 9번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19세였어요. 할아버지의 임무는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전사한 분들이 전우들과 함께 묻힐 수 있게 해 주시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께서 수습하신 전사자들의 시신 중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도 계지만, 멀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아들과 남편이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룬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의무감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니다.

제임스 그룬디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아들과 아버지들을 잊지 않고 있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할아버지와 많은 참전용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을 담아, 캠벨 에이시아, 용문초6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인문학 특강’ 매달 무료 강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관장 윤태석)이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2019 인문학 특강을 무료로 개최한다. 토요일 오후 2~4시 6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되며 고등학교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629-8632

회차	강사	주제	강연일
1	김용덕	일본의 국왕, '천황(天皇)'	5. 11.
2	송의정	새롭게 밝혀진 홍도의 실제	6. 15.
3	배경환	세계사 속의 31운동	7. 6.
4	신달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시작된다	8. 24.
5	이근우	동아시아의 왜구와 임진왜란	9. 28.
6	김홍신	발해, 유구한 역사와 문화	10. 19.
7	윤태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인문학을 본다	11. 9.

남구를 가꾸는 환경관리원 공개 채용

- 채용인원 : 5명
- 원서접수 : 2019. 6. 3. (월) ~ 6. 4. (화)
- 접수장소 및 방법 : 남구청 청소행정과 방문 접수
- 채용방법 : 서류심사(20점), 체력시험(60점), 면접시험(20점)
- 문의 : 남구청 청소행정과 ☎607-4431 ~ 6
- ※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채용공고' 참조



평화스쿨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엔평화기념관(관장 박종왕)은 625전쟁과 UN참전국, UN의 역할에 대한 전시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문화다양성과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체험프로그램 '2019 평화스쿨'을 연중 운영한다.

UN참전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청각 자료와 UN참전용사 페이퍼보이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 '알쓸달쓸? UN참전국!' 프로그램,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청각 자료와 PKO베레모·UN종이매달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 '나는 유엔평화유지군'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유료로 진행되는 'UN최빈국·참전국지원 기부봉사'는 비누와 거울 등 구호물품을 만들어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해준다.

매주 화, 수, 목, 금, 토 오전(10:00~12:00)과 오후(14:00~16:00) 2회차로 진행되며 홈페이지(www.unpm.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901-1490, 1406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기한 : 2019. 5. 1. ~ 5. 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 1.까지)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인터넷, ARS, 무인수납기 등)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607-4251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5월 소식

기관명	행 사 명	일 시	장 소	관람료	문의처
부산 박물관	박물관투어 <부산박물관-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유엔평화기념관-유엔기념공원-부산박물관>	5. 19. (일) 오후	부산박물관 및 UN평화문화특구 일대	무료	610-7184
	토요박물관교실 <부산의 독립운동관련 수업 및 포일아트로 태극기 만들기>	5. 25. (토) 오후	부산박물관	무료	610-7184
	부산문화가 있는 날 <에이전시 판타지쇼>	5. 31. (금) 오후	대강당	무료	610-7181
	피एम놀 : 피인딩 히어로	매주 화~금	유엔평화기념관 및 유엔기념공원	무료	901-1406
유엔평화기념관	2019 UN참전국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5월 중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unpm.or.kr)	100만원 (예정)	901-1402
	2019 국제기구방문 및 진로탐방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5월 중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unpm.or.kr)	500만원 (예정)	901-1402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5월 정기 환경정화 봉사활동	5월 매주 토요일	UN평화문화특구 일대	무료	901-1402
	유엔평화기념관 홍보도슨트 활동	5월 매주 토요일	유엔평화기념관	무료	901-1402
(재)부산 문화재단	2019 국내 UN참전국 현충시설 탐방프로그램	5월 말	국내 UN참전국 현충시설 일대	-	901-1402
	조수미 콘서트 <Mother Dear> -신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 -	5. 04.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70,000원 ~ 140,000원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목소리> - Human Voice -	5. 17.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000원 ~ 20,000원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5 - '오페라 이야기III'	5. 22. (수)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000원	
국립 일제강제 동원역사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9 솔리스트들의 축제	5. 28. (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미정	629-86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4회 정기연주회 'NEW WAVE 1' - 김수현 지휘자 취임연주회 -	5. 31.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미정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태극기' 展	5. 1. (수) ~ 5. 31. (금) 10~18시(매주 월요일 휴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6층 기록전시실	-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전쟁과 인권 상영회' 상영작 : 열케르크	5. 19. (일) 14시	-	-	
부산 예술회관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우리는 결의행진!'	5. 1. (수) ~ 5. 31. (금) 일정 및 시간 유선 협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무료	629-8632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출발! 역사관 탐험대'	-	-	-	629-8633
	체험 프로그램 '내 책상 위의 소녀상'	-	-	-	-
	체험 프로그램 '포포 브레이크'	-	-	-	-
부산 문화재단	작은영화콘서트 <소트북>	5. 21. (화) 16: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12-1372
	제4회 예인예술제	4. 29. (월) ~ 5. 3. (금)	부산예술회관 전시장공연장	무료	
	제33회 부산청소년예술제	5. 13. (월) ~ 6. 1. (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공연장	무료	
	2019 조선통신사 축제	5. 3. (금) ~ 5. 6. (월)	용두산공원 및 광복로, 부산항만연안여객터미널 등	무료	
부산 문화재단	홍티로 떠나는 예술소풍 <홍티여동-일상은 데일리북으로>	5. 8. (수) ~ 6. 5. (수)	홍티아트센터	무료	263-8662
	안녕하세요 예술제 -과화의 원리를 적용한 예술과화의 융합프로그램	5. 4. (토) ~ 5. 25. (토)	김민창의문화촌	무료	745-7245